

한의학 육성위한 특별법 제정된다

현행 의료법 한의학 특성 반영못해

한의학계의 숙원인 「한의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자료를 12월까지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의 경우 양방과 한방으로 별도 구분, 이원화해 놓고 있으나 하위법령이나 현실은 한의학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규 보완·제정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정부는 우리의 한의학과 비슷한 중의학을 청(廳)단위의 관리국을 두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경우 우수한 인적자원을 두고도 법규 때문에 속수무책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학계는 "그동안 한의학은 한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양방위주의 약사법·의료법에 발목이 잡혀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조차 놓쳐 왔다"고 지적, 이번 정부의 한의학 특별법 제정을 환영했다.

현재 전 세계 한약재 시장 규모는 무려 850억~1,000억 달러로 이중 60% 이상을 중국이 휩쓸고 있을 정도. 특히 미국·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유전자 재 조합 방식을 통해 다른 나라에 생약재의 역수출을 본격화 하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한약사협회 최환영 회장은 정부가 지금이나 한의약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수백년동안 임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처방을 양방의 신약심사 기준에 맞추는 약사법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회장은 "특히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 등 신약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특정 약재의 가감까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분중심의 양방적 시각에서 인체유해 가능성

이나 약효를 판단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범 대전대 한의대 교수도 "양방적 시각에서 임상시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한방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라면서 "같은 약재라도 볶아서 쓰는 것과 자연산 그대로 처방하면 정반대의 약효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약 육성 특별법에는 ▲한방 벤처기업 지원책 ▲한방 임상시험 및 동물시험 지침 ▲한약재 품질관리기준 ▲해외 진출기업 세제 지원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한·중·일 한약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

오는 20일 경희대

한약재를 원료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한·중·일 3국이 모여 '한약관리'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0월20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한·중·일 한의약 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한약관리제도의 발전방향과 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제시와 수렴을 통해 향후 한·중·일 3국의 연구협력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포지움에서는 정두재 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장이 <

우리나라의 한약관리제도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중국은 조지신(趙志新) 천진외과대학총의원이 <중약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일본은 masao hattori 도야마 의과대학 한약연구소 소장이 한약의 과학화를 위한 접근·연구동향을 주제로 한 <한약관리제도의 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약재 관리규정의 개정을 둘러싸고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제도의 개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한약재 전략산업화 적극 추진

사천성에 2백만평 규모 종합단지 조성 계획

한약재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사천성 왕창현(旺蒼縣)에 약 200만평 규모의 '중약재 종합 밸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 6가지 한약재만을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유통 등 연관산업을 한데 묶어 한약재 종합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왕창현에서 집중재배하는 품목은 삼목(三木), 양화(兩花), 일마(一麻)로 불리우는 두충, 황백, 후박, 금은화, 관동화, 천마 등이다. 200만평 규모에서 이들 한약재가 집중적으로 재배될 경우 세계 한약재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천성 왕창현을 약업으로 일으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억원을 투자해 왕창현을 중국 최대의 두충 생산단지로 만들었다.

중국이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며 대규모 종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단순히 가격경쟁력을 높여려는 차원을 넘어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대체의학의 붐을 타고 한약재 시장은 날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재의 재배 가공 유통에 있어서 중국의 주도적 지위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산 한약재에 밀려 국내 생약 재배면적이 급

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산한약재의 생산기반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따라서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은 품목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재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한가 계약재배 등 수매제 도입을 통해 국내 생약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중 공동 심포지움 개최

한국약용작물학회

한국약용작물학회(회장 최선영)는 오는 20일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및 한·중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약용식물로부터의 천연활성물질의 생산과 개발'이란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한·중 공동 심포지움에서는 황백 교수(전남대), 성낙술 연구관(작물시험장), 강명화 연구관이 국내 발표자로 특강할 예정이다. 국외 발표자로는 중국약용식물연구소의 쉬린양(Shilin Yang) 원원가오(WenyuenGao)던가오(Dean Gao), 중국전통한의학 진료연구소의 루치황(Luqi Huang), 국립약용 및 생물생산물 검사연구소의 루이차오린(Ruichal Lin)이 '중국에서 약용식물의 개발현황과 전망' '중국의 약용식물자원과

재배' '약용식물의 생물공학 적 연구' '약용식물의 원료와 조약제의 품질보증' '약용식물로부터 신약개발'이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홍삼, 다이어트에 좋아요"

인삼연 제품개발, 부작용 적어

고려인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홍삼다이어트' 제품이 만들어 진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 박명환 박사팀은 최근 "홍삼과 생약재를 이용, 인체에 부작용이 없이 비만치료와 예방까지 가능한 다이어트용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홍삼 다이어트 제품을 군산대학교 주종재 교수 연구팀에 의뢰, 동물실험을 한 결과 체지방이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희의료원 김영설 교수팀의 시험결과에서도 체중과 체지방률, 체지방률이 감소했다고 연구원측은 주장했다.

홍삼다이어트 연구의 발단은 인삼 성분 중 사포닌이 위장에서 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과 비만에 관한 한방처방에서도 인삼이 사용되고 있다는 문헌 때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기존 다이어트 제품이 식용약제, 복부팽만감, 설사 등을 통해 체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지만, 홍삼 다이어트는 지방분해를 유도하는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촉진해서 체내에 축적돼 있는 열량소모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각종 국제행사 맞아

"세계속 경동약령시로"

우리나라 한약재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시장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약령시'가 세계적인 한약재 판매 및 한방전문 진료지역으로 거듭난다.



▲ 사진은 약령시 축제장면.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과 경동약령시협회(회장 박의진) 관계자들은 최근 구청에서 회의를 갖고 경동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경동약령시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현 지하철역 명인 제기동역과 함께 '경동시장·약령시'로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대문구와 약령시협회는 아울러 이 지역 중심 가로변에 한약재 수종의 가로수인 버즘나무 및 은행나무를 심어

특색있는 녹화거리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내년 봄 왕산로~약령시길 485m 구간에 두충나무 등 4개종 106그루를 심고, 이어 2002년 까지는 약령시길~제기로 330m 구간에 73그루의 약용나무를 식재하기로 했다.

상설 및 임시 시장과는 별도로 특색있는 한약재만을 별도로 모아 전시 및 판매하는 '바젠세일 형식'의 '한약 5일장'도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경동약령시협회와 이달 초중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